

ROBERT MAPPLETHORPE THE POETICS OF FORM

9 JUNE - 19 JULY 2026

국제갤러리는 오는 6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옥에서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 1946-1989)의 개인전 《형태의 시학(The Poetics of Form)》을 개최한다. 메이플소프는 20세기 후반 미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초상화, 정물화, 누드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장르와 사디즘과 마조히즘 등 당대 뉴욕의 도발적인 하위문화를 결합하여 사진 매체의 경계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메이플소프의 국내 첫 개인전 《Robert Mapplethorpe: More Life》가 섹슈얼리티를 탐구한 사진부터 유명 인사의 초상, 탐미적인 정물 사진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그만의 서사성을 중심으로 소개했다면,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주제나 장르를 떠나 그의 사진을 관통하는 독특한 시각적 언어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무엇보다도 본 전시는 로버트 메이플소프 재단과의 협력으로 작가의 실험정신과 현대의 사진 기술을 접목한 새 오버사이즈 연작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옥의 절제된 공간감 안에서 펼쳐지는 《형태의 시학》은 메이플소프 특유의 연극적 긴장이 고요하고 통제된 실내 공간과 대조를 이룬다. 이번 전시는 주제 면에서 그가 주로 다루었던 인물, 여성 및 남성의 누드, 고전 조각, 꽃, 그리고 풍경 이미지들을 아우르는데, 특히 작가의 정제된 형식미가 돋보이는 이미지들에 중점을 둔다. 이번 전시작은 형식적으로 크게 두 개의 작품군으로 구성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핫셀블라드(Hasselblad 500) 카메라로 구현한 대표적인 젤라틴 흑백사진, 그리고 로버트 메이플소프 재단에서 최근 작가 생전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54 x 54인치(137.2 x 137.2 센티미터)의 사이즈로 인쇄한 오버사이즈 젤라틴 흑백사진이다.

“사진은 말하자면 조각을 만드는 완벽한 방법이다”¹ 라는 메이플소프의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발견된’ 이미지의 연장선에서 인식되던 사진을 조각이나 회화처럼 ‘순수 예술(fine art)’로 격상시키고자 했던 작가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가 사진 매체와 맺고 있던 관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연의 개입을 허용하는 ‘찰나의 미학’ 대신, 계산된 채광이나 완벽한 구도에 천착하는 ‘극한의 미학’을 추구했던 그의 사진은 실제로 그리스·로마 조각상의 고전적인 조형미나 비례감, 구성원리를 충실히 반영한다. 그는 빛과 그림자를 매우 치밀하게 통제해 인물, 꽃, 오브제 등을 마치 고전 조각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한 흑백과 그 중간의 여러 회색 톤들이 부여하는 섬세하면서도 강한 콘트라스트 역시 형태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면서, 사진을 평면 이미지라기보다 하나의 조각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 한몫 한다.

1960년대에 브루클린의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회화와 조각,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메이플소프가 사진 콜라주를 활용한 오브제 작업을 통해서 사진이라는 매체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게 예술은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마땅한 것이었기에, 이후 사진과 조각을 유연하게 오갈 만큼 줄곧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 이 ‘새로움’의 추구는 형식뿐만 아니라 대상이나 주제에도 적용되어, 그는 남성 누드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대에 흑인 남성 누드를 찍고, 미지의 영역이던 ‘죽음과 섹슈얼리티’를 전면에 내세워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덕분에 메이플소프는 사회적 논쟁과 예술 검열의 중심에 서기도 했으나, 그는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조차도 꽃과 오브제를 카메라 렌즈에 담는 경우와 동일한, 극도로 정제된 형식미와 정교한 질서를 고수했다. 흑인 남성의 누드 사진에서 화병의 견고한 형식미가 느껴지고 카메라를 통해 재현된 꽃이 의인화된 신체의 확장으로 보이는 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처럼 탐미주의와 급진성이 긴장 관계를 이루는 양가성은 메이플소프 작업의 핵심적 특징을 이룬다.

사진의 조형성과 형태에 대한 작가의 탐구는 매체와 작품 크기를 둘러싼 실험으로도 이어졌다. 메이플소프가 회화보다 사진에 더한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콜라주, 플라로이드, 젤라틴 흑백사진,

다이-트랜스퍼(dye-transfer) 기법의 컬러사진, 실크스크린, 석판 인쇄 등 다양한 매체를 오가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캔버스 위에 플라티넘 기법으로 인쇄하여 사진 표면에 캔버스의 질감이 그대로 표현되도록 하기도 했고, 1985년에는 다양한 프린팅 기법을 선보이는 전시를 열기도 했다. 메이플소프가 이러한 실험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근간에는 사진이 회화나 조각과 마찬가지로 작품으로서의 고유성과 희소성을 갖기를 지향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1988년 『BOMB』 매거진에 실린 게리 인디애나(Gary Indiana)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이 사진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그간 해온 작업의 크기와 규모로 보자면, 내 작업은 사진의 맥락에서 볼 수 없다”라고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크기의 문제는 메이플소프에게 사진 매체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생전에 메이플소프는 30 x 30인치(76.2 x 76.2 센티미터)부터 40 x 50인치(101.6 x 127 센티미터)에 이르는 오버사이즈 젤라틴 흑백사진 에디션을 120여 점 제작했다. 최근 로버트 메이플소프 재단은 사진의 디테일과 퀄리티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오늘날의 기술 환경에서 확장하고자, 현재 실버 젤라틴 종이로 인쇄 가능한 최대 크기로 제작한 ‘모던 오버사이즈’ 연작을 공개했다. 이번 전시는 이 연작 가운데 국제갤러리와 재단의 협력 하에 구현된 세 점을 국내외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화이트큐브의 맥락이 지워진 한옥 공간에서, 혼돈의 시대를 정교한 질서로 탐색하고 매체 실험을 통해 새로운 사진 미학을 열었던 메이플소프의 작품 세계와 그 형식미를 온전히 마주하는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1946년 뉴욕 퀸스 플로럴 파크에서 태어났다. 1963년에 브루클린에 위치한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 입학하여 회화, 조각, 그래픽 디자인을 수학했으나 6년 후 중퇴했다. 1970년에 플라로이드 카메라를 처음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시작한 그는 1973년 뉴욕에 위치한 라이트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서 제시된 주제들은 이후 그의 전 시기에 걸쳐 지속된다. 초반의 작업들이 주로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예술가들, 혹은 사교계 인물들을 담아냈다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작업들은 음지의 BDSM 및 퀴어 문화를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메이플소프는 이 외에 꽃이나 동물, 어린 아이들, 풍경, 혹은 고전 조각과 같은 평범하고도 전통적인 주제들을 다루기도 했다.

지난 1989년, 다소 젊은 나이인 44세에 숨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플소프는 20세기에 활동한 예술가들 중 현대사진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한 결정적인 작가로 여겨진다.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2019, 2005, 1993), 포르투 세라베스 재단(2018), 로스앤젤레스 J. 폴 게티 미술관(2016, 201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2016, 2012), 파리 그랑 팔레(2014, 1988), 런던 테이트 모던(2014), 뉴욕 휘트니 미술관(2008, 1988), 그리고 ICA 필라델피아(1988)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그의 개인전 및 회고전이 개최되었다. 메이플소프의 작품들은 로스앤젤레스 J. 폴 게티 미술관, 바젤 쿤스트할레, 뉴욕 현대미술관, 시카고 현대미술관,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그리고 요코하마 미술관 등 세계 각지의 기관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¹ Anne Horton, “Robert Mapplethorpe: Interview January 11, 1987,” in *Robert Mapplethorpe 1986* (Berlin: Raab Galerie, 1987), 12.

ROBERT MAPPLETHORPE

THE POETICS OF FORM

9 JUNE—19 JULY 2026

Kukje Gallery is pleased to present *The Poetics of Form*, a solo exhibition of Robert Mapplethorpe, on view in the *Hanok* space from June 9 through July 19, 2026. Widely recognized as among the most significant American photographers of the late twentieth century, Mapplethorpe is known for pushing the boundaries of the photographic medium and challenging the limits of artistic expression. Through his iconic black-and-white prints, he challenged the norms of traditional genres—portraiture, still life, and the nude—by incorporating New York’s provocative subcultures such as homoeroticism and sadomasochism. Following his first solo exhibition *Robert Mapplethorpe: More Life* at Kukje Gallery in 2021, which introduced a wide range of subjects from Mapplethorpe’s iconic oeuvre, including explorations of sexuality, celebrity portraits, and his studies of flowers, this exhibition, held five years later, shifts the focus away from subject matter or genre. Instead, it highlights the distinctive visual language that runs consistently throughout Mapplethorpe’s work.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the exhibition also marks the first presentation in Korea of the artist’s new oversized silver gelatin series, which combines the artist’s experimental spirit with advances in photographic technology.

The Poetics of Form unfolds within the restrained spatial sensibility of the *Hanok*, where Mapplethorpe’s characteristic theatrical tension is set against a quiet, controlled interior. The exhibition brings together subjects central to his practice—ranging from portraits and male and female nudes to classical sculpture, flowers, and landscapes—placing particular emphasis on images that exemplify his refined formal sensibility. The exhibition is divided into two primary bodies of work: the artist’s signature silver gelatin prints produced from the mid-1970s through the 1980s using a Hasselblad 500 camera, and a group of oversized silver gelatin prints measuring approximately 54 x 54 inches (137.2 x 137.2 cm) that were produced posthumously. Produced under the strict supervision of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these large-format works reflect the artist’s long-held aspiration to expand the scale of his photographs.

“Photography is just, like the perfect way to make a sculpture.”¹ These words by Robert Mapplethorpe help to contextualize his vision and relationship to materials, reflecting his determination to elevate photography—once perceived merely as an extension of “found” images—to the status of fine art, alongside sculpture and painting. Eschewing an aesthetic of chance, Mapplethorpe pursued instead an “extreme aesthetic” defined by calculated lighting and formal composition. His celebrated photographs embody the classical formal beauty, proportions, and compositional principles found in Greco-Roman sculptures. By meticulously controlling light and shadow, he imbues his subjects—whether they are figurative studies, flora, or objects—with the formal grace and weight of classical statuary. Furthermore, the nuanced strong contrasts between black, grey, and white sharply define the forms, contributing to the perception of the photographs as three-dimensional.

The fact that Mapplethorpe studied painting, sculpture, and graphic design at Pratt Institute in Brooklyn during the 1960s and first became captivated by photography through making “objects” consisting of photo collages offers crucial

insight into his visionary practice. For him, art was meant to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any single medium, and his pursuit of creative innovation led him to fluidly traverse the realms of both photography and sculpture. This quest for “newness” extended beyond form to his subjects and themes. At a time when the male nude itself was taboo, he captured Black bodies and brought the theme of “death and sexuality”—then uncharted territories—to the forefront, blurring the lines between art and sexuality. Although these themes often placed him at the center of social controversy and battles over censorship, he approached his most provocative themes with the same degree of extreme formal elegance and rigor as found in his still lifes. It is through this aesthetic precision that the solid formal beauty of a vase finds echoes in his study of Black male nudes, while the sensuous forms of flowers captured through his lens appear as extensions of the human form. This ambivalence, defined by the tension between aestheticism and radicalism, constitutes the core characteristic of Robert Mapplethorpe’s work.

Mapplethorpe’s sustained exploration of formal aesthetics and composition of photographs extended to his experiments with medium and scale. For the artist, photography held a particular appeal in its capacity to explore a wide range of processes and materials, including collage, Polaroids, silver gelatin prints, dye-transfer color prints, silkscreen, and lithography. He also produced platinum prints on canvas, allowing the texture of the support to remain visible on the photographic surface. In 1985, Mapplethorpe further underscored this experimental approach by presenting works employing different printing techniques at an exhibition. Underlying these investigations was his conviction that photographs, like painting or sculpture, could possess a distinct sense of originality and rarity as autonomous works of art. As he remarked in a 1988 interview with Gary Indiana for *BOMB Magazine*, “I forget that it’s photography. I don’t see it in the context of photography, because of the size and scale of what I’ve done.” For Mapplethorpe, questions of scale were thus central to reconfiguring the perception of photography as a medium.

During his lifetime, Mapplethorpe produced over 120 oversized editioned silver gelatin prints, ranging in dimensions of 30 x 30 inches (76.2 x 76.2 cm) up to 40 x 50 inches (101.6 x 127 cm). In recent years,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has sought to expand this aspect of the artist’s practice as a result of advances in technology; strictly observing the wishes of the artist, they have introduced a new *Modern Oversized* series produced at the currently attainable size with silver gelatin paper. This exhibition marks the first time audiences encounter these particular works in this size made possible through a collaboration between the Foundation and Kukje Gallery.

Through his meticulous ordering of form amid a period of cultural flux, and his persistent experimentation with photographic media, Mapplethorpe forged a singular visual language that continues to shape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photographic aesthetics. Set within the *Hanok* space where the conventions of the white cube are suspended, the exhibition offers an opportunity to encounter Mapplethorpe’s artistic vision and formal rigor in a new context.

About the Artist

Robert Mapplethorpe was born in 1946 in Floral Park, Queens, New York, and later enrolled at Pratt Institute, Brooklyn, in 1963 in pursuit of painting, sculpture, and graphic design but eventually dropped out six years later. Since his first encounter with a Polaroid camera in 1970, he actively began to produce his own photographs, leading up to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the Light Gallery in New York in 1973. The subjects explored in his photographs in this exhibition continued to recur throughout his career. Close friends, lovers, and acquaintances, varying from artists to socialites, often became the source of his early works. Beginning in the late 1970s, his work increasingly engaged with BDSM and queer subcultures. At the same time, Mapplethorpe continued to explore more conventional subjects, including flowers, animals, children, landscapes, and classical sculpture.

Robert Mapplethorpe died at the age of 44 in 1989, and h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rtists of the twentieth

century, having played a pivotal role in expanding the horizons of modern photography. Numerous solo exhibitions have been held in prestigious institutions, including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2019, 2005, 1993); Fundação de Serralves, Porto (2018); J. Paul Getty Museum, Los Angeles (2016, 2012);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os Angeles (2016, 2012); Grand Palais, Paris (2014, 1988); Tate Modern, London (2014); Whitney Museum, New York (2008, 1988); and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1988). His works are held in prominent permanent collections worldwide, such as J. Paul Getty Museum, Los Angeles; Kunsthalle Basel, Basel;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Chicago;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and Yokohama Museum of Art, Yokohama.

¹ Anne Horton, "Robert Mapplethorpe: Interview January 11, 1987," in *Robert Mapplethorpe 1986* (Berlin: Raab Galerie, 1987), 12.